

올림픽을 빛낸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 태권도 차동민

‘행운’ 아닌 ‘땀’으로 일군 ‘金’

대표 선발전 전승으로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경험 부족 실력으로 극복

“이제 4년 전 문대성 선배의 뒤처리기를 잊고 제 금메달을 기억해 주세요.”

20대 꽃미남 장흥출신 차동민(22·한체대)의 작은 소망이다. 차동민은 이번 올림픽에서 문대성의 뒤를 이어 ‘태권도의 꽃’이라는 남태권도 최중량급(80kg 이상급)의 금메달 신화를 이어갔다. 차동민의 끝없는 금빛 발차기로 인해 한국태권도는 출전한 4체급에서 사상 처음으로 모두 금메달을 따게 됐다.

어떤 이들은 차동민의 올림픽 출전부터 금메달까지의 여정이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행운이란 것도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차동민의 금메달은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그만큼 차동민의 금메달 여정은 평탄하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대의 젊은 그가 이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들은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평소 신념 덕분이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태권도와 함께 땀 흘린 결과다.

당초 차동민은 한국 선수 중에서 금메달 획득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남자 80kg 이상 급은 체격과 실력

이 우수한 외국선수들이 즐비했고 차동민은 국제종합대회 경험이 전무한 소위 ‘새내기’였기 때문이었다.

대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한태권도협회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이 체급에서 선수선발 계획을 잡아놓지도 않았다. 다행히 은퇴했던 문대성이 컴백을 선언하면서 이 체급이 올림픽에 나갈 분위기가 조성됐고, 문대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선수위원 준비를 이유로 대표 선발전을 포기하자 차동민은 선발전 전승을 기록하며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하마터면 출전 기회도 얻지 못할 뻔한 차동민으로선 행운이었다.

큰 아버지 차병수(61)씨는 “우리 동민이가 어려서부터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영리했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도 그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동민은 어렵게 획득한 올림픽에서 20대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하고 지능적인 플레이로 주변의 우려를 날려버리며 태권도 4번째의 금메달을 일켰다.

차동민은 금메달이 확정된 뒤 관중석을 향해 두 차례 큰 절을 남쪽 올렸다. 22살의 예의바른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차 선수의 할머니 김금주(78)씨는 “우리 동민이 얼마나 듣지 않습니까. 동민이가 예의가 발랐는데 경기 후에도 큰절을 올리더군요. 고향에 오면 꼭 고은 백숙으로 건강을 챙겨줄 겁니다”고 손주 사랑을 숨기지 않는다.

태권도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태권도 최중량급의 ‘꽃’으로 피어난 차동민의 화려한 발차기가 4년 뒤 런던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생순’ 주역들 목표 온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내달 4일 실업핸드볼 대회 참가 남자부에선 ‘거포’ 윤경신 출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만큼 값진 동메달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재현한 여자핸드볼 선수들(사진)이 다음달 국내 대회에 출출동한다.

소속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은 9월4일부터 6일간 목포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동메달 감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체전 한 달 전에 열려 각 팀의 우승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여자부의 경우 오성욱(히포뱅크) 등 해외파 5명은 빠지지만 ‘아줌마’ 수문장 오영란

을 비롯해 문필희, 박정희, 김은아, 김남선(이상 부산건설), 안정화, 송해림(이상 대구시청), 이민희(용인시청) 등 대표 선수가 모두 출전해 국내 코트를 뜨겁게 달군다. 임영철 대표팀 감독도 오랜만에 소속팀 부산건설 사령탑에 복귀해 우승을 지휘할 예정이다.

여자부는 부산건설과 대구시청, 용인시청, 삼척시청, 부산시설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등 기존 실업 6개 팀이 출전하며 전국체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남체육회까지 가세해 총 7개 팀이 2개 조 조별리그 후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자는 이번 올림픽 8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스타급 대표선수들이 각 소속팀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사른다. 세계 최고 프로핸드볼 리그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차례나 득점왕에 올랐던 203cm의 ‘장신 거포’ 윤경신(35·두산)이 처음으로 실업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Beijing 2008 결산

〈4〉 ‘스포츠 공룡’으로 떠오른 중국

‘슈퍼파워’ 중국이 아시아 1인자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 스포츠 최강자로 우뚝 섰다.

중국은 안방에서 개최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51개와 은메달 21개, 동메달 28개 등 모두 100개의 메달을 획득, 금메달 36개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사상 첫 종합우승을 확정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24년 만에 이룬 경사다. 중국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베이징 대회에서 종합 1위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2000년 시드니 대회 때 종합 3위로 올라선 중국은 2004년 아테네 대회 때 금메달 32개를 따 36개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미국을 4개 차로 바짝 뒤쫓았다.

중국은 ‘안방 잔치’를 위해 이번 대회에 모든 스포츠 역량을 집중시켰고 홈 이점까지 안아 무난하게 종합 1위 꿈을 이뤘다.

하계올림픽 무대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던 미국을 밀어내고 마침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의 사상 첫 올림픽 종합우승 원동력은 전략 종목인 체조와 역도, 다이빙, 사격, 배드민턴, 탁구 등에서 예상대로 대선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아테네 대회 남자 허들 110m 챔피언인 ‘황색 탄환’ 류샹이 부상에 발목을 잡히며 가장 많은 47개의 금메달이 걸린 육상에서 단 1개도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성적표로는 놀랄 만한 것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집중 육성

올림픽 출전 24년 만에 미국 제치고 세계 최강

체조는 남자부 3관왕에 오른 주카이와 2관왕인 양웨이를 앞세워 금메달 14개 중 무려 9개를 휩쓸었다. 또 역도는 출전 10체급 중 8체급에서 금빛 바벨을 들어올렸고 다이빙은 2관왕 2연패에 성공한 ‘여제’ 귀징징을 내세워 7개를 사냥했다.

이런 중국의 조강세는 13억 인구를 거느린 대국으로 자체 경쟁이 치열해 엄청난 전력 상승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데다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량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제 웬만한 적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 스포츠계의 ‘공룡’이 돼 버린 것이다.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기본기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수천 명이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비로소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선발 시스템과 6개월 가까운 집중 훈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국이 스포츠 대국으로 성장한 또 다른 이유다. /연합뉴스

역도연맹 올림픽 메달 포상금 없나?

재정상태 열악 계획조차 없어 연맹측 “시간 걸릴 것 같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도대표팀이 금 2, 은메달 1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도 대한역도연맹(회장 여무남)으로부터는 이렇다할 ‘당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태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도연맹은 27일 “대표팀이 기대이상 성적을 내면서 포상금으로 얼마를 책정할 지 고민이다. 재정상태도 열악해 포상금 지급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이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눈치다.

연맹의 이러한 태도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상관없이 다른 경기단체나 소속 실업팀의 움직임과 비교하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드민턴의 경우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이미 무려 3억 원이라는 후한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림픽 전 탁구와 체조, 사이클, 펜싱, 요트 등이 금메달을 따낼 경우 최소 1억 원을 웃도는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수단 격려를 위해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나선 다른 종목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또 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25·고양시청)과 사재혁(23·강원도청)을 위한 소속 팀의 대우도 연맹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다.

연맹이 포상금 지급을 말 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과연 옮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축 8월은 광복의 달입니다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축하합니다.



- 보혜양조(주) 사장 임진우
- 대표이사
-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형
- 회장 김용주
-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경구
-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이상현
- (주)보경전기 대표이사 이상선

- 목포상그리아임직원일동
- 비치호텔
- (주)부경일레콤 대표이사 임영춘
- (주)유경전력 대표이사 나춘희
- (주)정승건설 대표이사 조인형
- (주)목주건설 대표이사 김영권

- K T 목포지사 임직원 일동
-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임직원 일동
- 목포신문 협회 회원 일동
- JJ연예기획사 임직원 일동
- 만호산업(유) 대표이사 이민철